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10.31.(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위원 7인(박화선, 이상현, 이성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새 사장이 취임했다. 개국 이래 첫 단독 사장이다. 축하드린다. 그리고 기대가 크다. 연합뉴스TV는 그간 보도채널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해 왔다. 앞으로는 방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시청자가 사랑하는 방송, 뉴스가 궁금할 때 제일 먼저 찾는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 요즘 AI 뉴스, 플랫폼 다각화에 대한 논의가 많다. 언론계 전체에서 많은 변화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TV 새 경영진도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로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기본에 충실한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공정하고 빠른 보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그러나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시청자위원회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첫 단독 사장인 만큼 새 경영진은 주어진 임기 동안 회사가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린다. 단기간 성과도 중요하지만, 연합뉴스TV가 최고의 방송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 연합뉴스TV와 새 집행부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먼저, 공정보도 확립 요청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갈등과 이해 대립이 전례없이 심각해지면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연합뉴스TV가 종편, 보도채널은 물론, 유사 보도채널이 난립한 속에서 보도채널 시청률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불편부당' 원칙 하에 객관적 팩트 보도에 집중해온 저희 채널의 성격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여기며 시청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TV가 가꿔온 '있는 그대로의 뉴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서 회사의 장기 존립을 위협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합뉴스TV는 이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다수 언론, 방송사들이 특정적 편향을 갖더라도 중심을 지켜 시청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뉴스,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보는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뉴스워치(월~금 16:27~17:35) -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 코너는 광역과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해당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 및 행사나 축제 등 다양

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지역균형 발전 및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코너로 보입니다. 또 서울, 광역시, 특례시와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역할도 중요한데 초대 받고 출연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홍보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TV를 팔로업하셔서 아마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 연합뉴스TV가 어느 방송보다도 지방 지역 관련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뉴스 보도 채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관련 보도를 확충하고 관심을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라는 코너도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너인데 저희가 예컨대 각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지역의 주요 역할을 하시고 있는 분들, 단체장들을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나 특례시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조금 작은 단위로 구청장들도 계시고 하는데 구청장들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저희 채널에 초청을 해서 과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저희가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4시간 채널이긴 하지만 사실상 공중파에 해당하는 그런 방송인데 너무 작은 지역의 작은 소소한 문제까지 우리가 과연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슈가 있거나 여러 가지 주요 사례가 있거나 재미있는 어떤 모범사례 같은게 있거나 하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출연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슈가 있고 시청자들에게도 알릴 만한 내용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출연 가능한 만큼, 아무리 작은 지자체 단체장이라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이야기가 있다면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출근길 인터뷰] 중부유럽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서울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부터 중부유럽의 클래식 음악에 대해 나라별로 그 특성과 감상 포인트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며 시청자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한 자막이 나오다 갑자기 뉴스속보 자막 "15-29세 청년층 고용률 45.8% "건설업 10만명 감소 '역대최대'라는 자막이 올라와 의아했습니다. 보통 속보라 하면 긴급재난, 사고, 정치적 핫 이슈 등으로 이해하는데 고용률 감소 뉴스가 속보로 크게 지문을 차지하다보니 인터뷰의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 [다다를 인터뷰] 바이올린계 '퀸연아'의 탄생...로마공항 뒤집은 천재와의 만남, 10살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양의 연주 영상과 인터뷰를 보면서 피겨 여왕 김연아에 이은 새로운 김연아의 활약과, 어린 소녀의 클래식 사랑과 곡에 대한 감성 표현이 남달라 아주 흐뭇한 방송이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출근길 인터뷰'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뉴스 속보 자막이 나온 것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뉴스 속보에 그 자막을 내 보낼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

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팩트여야 되고 긴급하게 알 만한 사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각 취재 파트에서 올라간 게 그냥 흘러나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 구조가 각 취재부서에서도 이 자막을 내보낼 수 있고 또 지금 참석한 우리 김민혜 부장이 맡고 있는 총괄 부서라는 데서 그걸 또 한 번 게이트 키핑 한 다음에 내보낼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아마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이 그냥 게이트 키핑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아마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막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막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뉴스가 선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 팩트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더라도 자막을 줄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뉴스상 속보를 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급한 속보가 아니라면 출근길인터뷰 이후로 조정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와 논의해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다를 인터뷰]는 저희의 대표 디지털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화제가 되는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TV 방송은 아니고 유튜브로 나가는 콘텐츠인데요. 저도 이 콘텐츠를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잘 맞는 콘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아 양의 사례처럼 우리 이웃이 가진 열정, 자극적이지 않은 성장의 모습을 공유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경제썩썩] 2024. 10. 15일 보도 되었던 뉴스 제목 : "스마트폰 보였다가"...아이돌 마케팅의 명과 암, 2024년 10월 15일 경제부 한지이 기자와 함께 "스마트폰 보였다가"...아이돌 마케팅의 명과 암이라는 뉴스 제목으로 보도했던, 옴니버스형 '경제썩썩'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자들이 그 시점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핫 이슈 등을 통계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한 신조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어원을 풀이하여 그 뜻을 해석 보도 하므로써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패노크라시'는 Fan(팬)+-(O)Cracy(통치)= 합성어로 '팬이 통치하는 문화' 라든가, 옴니보어(Omnivores)는 '잡식 동물처럼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둔다는 뜻, 개인이 아닌 개인의 취향에 집중한다는 의미 내포' 이렇게 신조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보도를 진행하여 주니, 보도 뉴스가 썩썩 이해되었다. 또한 경제 뉴스답게 주요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을 표와 그림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고, '슈퍼 멤버십 전쟁' 보도에서 각 사 유료 멤버십을 업체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보도 하므로써 시청자들이 한눈에 비교 분석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4가지 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경제부 한지이 기자가 각 보도 내용을 내실 있게 보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 내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멘트로 보도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 역시 4가지 뉴스를 10분 동안 보는데, 보도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들었으며 1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뉴스 시청을 하였다. 경제부 한지이 기자처럼 계속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보도를 한다면 연합뉴스TV '경제썩썩' 코너가 더 많은 시청자들로 부터 사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9월 시청자 의견으로 신조어와 약어 등을 그 뜻과 어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 없이 뉴스 보도가 많이 이루어져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

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10월부터 바로 개선되어 보도되는 것을 볼 때에 보도국의 앵커, 기자들과의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연합뉴스TV가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방송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제가 두어 달 전에 보도국장 시절에 보도본부장 대신해서 회의에 들어왔었는데 당시 우리 위원님께서 신조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국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부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신조어 사용을 좀 줄이고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는 콘텐츠 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그게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썩썩'이라는 코너는 만들어진 지가 한 이제 4~5개월 정도 됐는데 경제부에 차장 4명이 돌아가면서 진행자와 함께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일대일 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주간에 있던 경제나 기업과 관련된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유익하고 인기가 있고요. 괜찮은 코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건기 위원

10월 7일 뉴스 리뷰에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美 앰브로스·러브컨 선정"을 아주 짧은 단편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수상에 대한 소식을 발표 당일인 10.8일과 10월 9일에는 다루지 않다가 10월 10일 뉴스 오늘의 이 시각 핫뉴스에서 노벨 화학상 소식을 짧게 다뤘습니다. 또한, 그나마 수상자 인터뷰내용과 함께 10월 10일 라이브 투데이에서 노벨 화학상 소식과 노벨 물리학상 수상 관련 보도가 거의 전 부여서 과학 분야에 대한 보도가 너무 적었습니다. 이후 10월 10일 저녁에 뉴스 속보로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 전달을 시작으로 이후 한강 작가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나마 10월 15일 출발 600에서 'AI가 노벨상 받는 날 올까...' 인류 위협'우려' 보도에서 인공지능 AI연구자들이 노벨물리학상부터 화학상까지 탄 사실을 보도하면서 AI발전의 우려와 활용 등을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짧게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들을 보면서 과학 분야에 연합뉴스 TV가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뉴스 전문채널인 연합뉴스 TV가 해외 노벨상 수상 소식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이 없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분석하는 이슈 진단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히 수상자 발표 소식만 전할게 아니라 노벨상 수상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분석 등 심도 깊은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타 방송에 비해 연합뉴스TV는 작품에 대한 소개, 국민들의 독서 열풍, K-문화 열풍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좋았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과학 보도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말씀은 제가 잘 계속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숫자 면에서도 부족하고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도본부장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한 2~3년 지나고 나서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 이슈가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일하는 '신 노년층' 주목..."내 재산 내가 쓴다", 해당 보도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대거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자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달라진 가치관을 지닌 '신노년층'이 등장했다"는 소개로 시작합니다. 기자는 "흔히 1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지칭되는 1955년부터 1963년생을 포함하여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3000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부모와 자식 세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긴 세대"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모와 자식세대를 부양하여야 하는 의무감이 컸던 세대로 인식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는 "최근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재산 상속방식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2008년 9.2%에서 2023년에는 24%를 넘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고,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이 뒤를 이었으며, '장남에게 많이 상속'의 경우는 반 토막이 나며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한 응답의 경우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제시되었으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관한 응답은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가 없어 연도에 따라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어려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 비중은 39%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노인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경우 앞의 보도 내용과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신노년층이 '재산을 나와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진 사회 현상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없었고, '노인 교육'의 경우 단순 자아실현을 위한 것인지, 직업 전환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교육 형태와 내용을 알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기사 말미에서는 '일자리나 자산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인구고령화와 겹치면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우려를 전합니다. 이어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사회의 이해관계를 체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기존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체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사회구조나 체제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라 젊은 층이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세대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자산을 사용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문(다소 차별적 시각이라는 판단임)이 들었고, 이에 대한 다른 시각도 제시하였다면 좀 더 균형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도 기사 읽어봤는데요. 기사가 이제 좀 약간 조금 어지럽다는 느낌을 저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라는 게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던지려고 하다 보면은 기사가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목표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기사의 어떤 야마라고 할까 저희 내부

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기사의 주제와 기사가 끝날 때 나오는 어떤 결론이 조금 상충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쓰는 과정에서 정부 통계를 다 녹이려다 보니까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좀 기사를 하여간 좀 더 매끄럽고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박화선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박화선 위원(서면 제출)

[리부팅 지방시대] 한국인에게 노잼도시 대전과 성심당 효과 10월7일

지방 관련 특집뉴스들은 대부분 지방의 고령화, 소멸 가능성 등 별 대안없이 나오는 부정적 기사가 대부분인데 노잼도시로 알려져 있던 대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특집 리포팅 뉴스여서 관심있게 보게 됐다. 지역을 넘어 전국구 인기를 누리는 빵집인 성심당은 대표적인 로컬푸드로 자리잡았으며 외부의 요청에도 로컬푸드로서의 자긍심과 지역의 밀착된 역할로 오히려 대전을 상징하며 대전을 방문하는 주요 계기가 되는 관광산업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역내 대표적인 빵집에 기대는 낙수효과로는 노잼도시 대전을 확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당일 코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리포팅에서도 말했듯이 대전은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진 도시이다. 일단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시내 밀도가 낮아 복잡함보다는 편안함, 아늑함을 주며 수변도시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적으로도 국내의 유수의 과학도들이 몰려있어 각종 연구소 카이스트가 있는 과학 도시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가 가지는 차별성을 살려 빵집에 기대는 대전의 모습이 아닌,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인구 70만의 벤츠, 포르쉐의 도시로 유명한 슈투트가르츠처럼 과학, 먹거리, 저밀도의 도시분위기를 리브랜드화 시켜 성장하는 대전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해당 리포팅도 너무 성심당 위주로 편집을 하다보니 빵에 가려 대전의 다양한 리브랜드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가려진거 같아서 아쉬웠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리부팅 지방시대'는 저희 지방 지역 발전을 위한 코너인데 여기서 대전을 소개를 했고 대전을 소개하면서 대전에 있는 빵집 성심당이라는 곳을 주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던진 콘텐츠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적해 주신거는 너무 성심당 위주로만 얘기가 됐고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코너 자체가 그렇게 긴 게 아니라 짧게 한 15분 정도 그 정도가 하는 거여서 사실은 이렇게 짧은 콘텐츠에서는 딱 하나만 제시하는 게 가장 선명하고 인상적입니다. '리부팅 지방시대'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매주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 아주 인상적인 것들을 딱 잡아가지고 포착해서 그 단면을 탁 캐치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코너를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안성희 위원

- [사건사고] 출근길에 '광'...통근버스 운전자가 숙취운전 外 (9.20), 3분25초 분량으로 전달 발생한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코너였는데, 기자가 첫 번째 사고(19'')와 세 번째 사고(1'45'') 설명 시에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몇 차례 보면서 기사를 읽거나 (기사가 잘 보이지 않는 듯) 말을 더듬기까지 해서 시청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스크립트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것 인지, 바닥을 보면서 진행하는 모습은 시청에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뉴진스 하니 국감 관련 보도, 취지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 (10.15-10.16 관련 보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쟁과 공천 개입 의혹 등 보도로 전국민이 피로감과 불편함까지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비단 연합뉴스TV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10.15. 국감 환노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 하니 관련 보도에서 오히려 국감 질의 외 이슈(과방위 파행, 셀카 논란)가 가십성으로 보도되면서 전반적인 보도 내용이 'K팝 연예인 인권 사각지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 등' 참고인 출석의 취지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관련 이슈가 있더라도 취지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홈페이지 영상 시청 시 우측 하단 영상 노출 편리, 홈페이지에서 영상 시청 시 스크롤을 내렸을 때 우측 하단에 작은 화면 창이 스크롤을 따라 계속 노출되고 있어 텍스트를 함께 보면서 영상을 보거나 자료 서치 등에 편리함이 있어 긍정적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진행자가 프롬프트를 보고 진행을 하는 형식인데, 신입 AD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발바닥 밑에 원고를 놓고 프롬프트를 보고 만약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아마 컴퓨터가 안 떠서 읽지 못하고 이제 잠깐 밑에 더듬고 버벅거리고 그랬던 건데, 그전에도 좀 들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또 들고 가는 게 좀 어색하다 이래가지고 또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은 과방위원장이 너무 돌출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사를 안 쓰고 넘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국감 업무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어서 저희가 취재 때문에 인력 여러 가지 상황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과방위원장이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거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뉴스에 어떤 초점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지나고 보서는 조금 언론 보도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만 과방위원장,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단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가 들고요.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기에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연합뉴스TV의 뉴스 시청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와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이상헌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서면 제출)

- OTT 중도해지 어려워..."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10/8)라는 보도 관련, 국내에서 이용자가 많은 OTT서비스는 중도 해지가 어렵고, 해지가능 있어도 환불절차가 복잡하다거나 해지 후 과오납부 처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너무 짧고 단조롭게 구성해서인지 보도내용이 어색했습니다. 길지 않더라도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나 권고사항 등을 구분해서 언급한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시청자)와 관련되거나 관심가질 내용이라면 앞뒤 맥락이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전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최근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자막처리에 쓰이는 용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왔는데요. <농식품부 "김장배추 생육 회복...수급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보도에서 보면 '생육'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자막 처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반드시 써야 하는 용어가 아니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넷플릭스 관련 기사를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보니까 단신 세 문장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마 리포트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족하고 안 쓰기에는 또 좀 찝찝하고 해서 아마 이렇게 짧게 쓴 것 같은데 짧게 쓰다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기사를 모든 기사를 다 리포트를 만들거나 제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와 소비자에게 좀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기사 제목 중에 김장배추 생육 회복이라는 말이 생육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용어는 가급적 제목에는 안 쓰는 게 좋을 텐데 아마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들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좀더 쉬운 용어로 풀어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이성우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서면 제출)

- 유명 증권사·전문가 사칭 사기...한 순간 날아간 노후자금(10.22.), 주식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신중 수법에 당한 피해자 인터뷰가 담긴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유명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짜 사이트를 마치 공인된 증권사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곳에서 거래를 진행하게끔 유도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습니다. 이러한 투자 사기 관련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연합뉴스TV는 공영성을 갖고 있는 언론사답게 꾸준한 뉴스 보도를 통해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투자 사기의 수법이 자꾸 다양해지다 보니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1~2분 내외의 단신 뉴스로는 아무래도 범죄 피

해를 예방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투자 사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 방송이 아닌 공영성을 지닌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연합뉴스TV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집중 조명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투자 사기에 조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앞으로도 이런 일종의 고발성 기사라든지 탐사기획의 기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